

취약계층 복지사업 · 탄소중립 실현 동참

전주시-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 가져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전주시의 40개 라이온스클럽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총재 김동근) 전주시지역 40개 클럽은 1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동근 총재 및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22년도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어져 온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전주시지역 40개 클럽들이 전주시 35개 동과 결연을 맺고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1억3000여 만 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이 같은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자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00여 국제라이온스 356-C(전북)지구 회원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생활화,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소비 줄이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근 총재는 "우리 지역 내 소외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전주시지역 40개 클럽은 1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동근 총재 및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22년도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계층과 함께 나누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민간 협력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국제라이온스356-C(전북)지구와 전주시의 결연사업은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지역 사회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협약식이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국회의장상 수상

"지방자치 발전 · 시민 행복 위해 더욱 정진할 것"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전북, 인후1·2동, 금암1·2동)이 지난달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장상은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국회가 수여한다.

강 의장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 왔다. 또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집행부와의 견제·감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

주주의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중장기 촉구 성명서 채택, 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추경 예산 증액 의결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강 의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한 노력을 인정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9세 의붓딸 12년 성폭행... 징역 2년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범행으로 의붓딸은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차례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뺨등을 세게 때렸다"면서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했고 아홉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전주시, 공공비축미곡 1486톤 매입 돌입

전주시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1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나섰다.

시는 올해 전주농협 모약창고 등 3개소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1486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공비축미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매년 일정량의 벼를 시기로 매

입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자를 위한 복지용 쌀, 관수용과 가공용 등 여러 용도로 가공돼 반출된다.

올해 매입대상 품종은 신동진과 새일미이다.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입대금은 중간정산금인 3만 원을 수매 후 즉시 지급하며 최종 매입금액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2020년산 수매가격(40kg/포)의 경우 특등 7만7620원, 1등 7만5140원, 2등 7만1800원이었다.

시는 공공비축미 매입검사장 내 모든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수매를 실시하는 동시에 마을별 출하를 통해 현장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황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병해충 피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값진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벼 수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매입검사장 내 모든 종사자와 기계차, 차량 등 운송 수단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에는 전주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이 신동진과 해품벼로 선정돼 매입이 이뤄진다. /김윤상 기자



탄소중립 실현 공동체 모집

전주시, 5~9일까지... 아이디어 제안 · 실천 사업 추진 지원

전주시가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동체에 최대 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민과 함께 실현해나갈 공동체 10여 곳을 모집한다.

참여조건은 5명 이상의 전주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지원분야는 △시민 대상 탄소중립 관련 교육 및 홍보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활동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참여 공동체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각기 제안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각 공동체에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사업예산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주시 마

을공동체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에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blakant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구체성, 사업 추진 가능성, 파급효과,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다음 달 25일 선정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데 공동체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공동체들이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방안을 계획함으로써 공동체 역량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돼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